

女性の 就業狀態와 出産力の 變化

洪 思 媛

目 次

- I. 序 論
- II. 資料 및 分析方法
- III. 分析結果
- IV. 結 論

I. 序 論

1962年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이 시작된 이래 급격한 人口增加는 國家經濟발전의 障礙 要素의 하나로 認識되었으며 이러한 要素를 제거하기 위한 手段으로 人口政策이 樹立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의 人口政策은 家族計劃과 同意語로 사용될 만큼 家族計劃事業이 중심을 이루었다. 家族計劃事業은 과거 15年間 人口成長 억제에 큰 공헌을 해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限界點에 도달했다고 評價되고 있다. 이는 家族計劃事業이 원하는 子女

數만큼만 낳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좋은 手段이 되고 있지만 원하는 子女數 자체를 결정하는 데에 影響력을 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理想子女數로 생각하는 「아들 둘, 딸 하나」의 價値觀에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出産力水準에 도달하였으나¹⁾, 人口政策 목표상 指向하고 있는 「딸 아들 구별 없이 두 子女」라는 목표와는 상당한 距離感이 있는 점이 그 實例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人口政策이 계속해서 人口增加 抑制에 목표를 두는 한, 人口政策事業의 方向은 既存의 家族計劃事業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동시에 個人의 理想子女數를 國家가 목표하는 子女數의 水準에 일치시킬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는 데 力點을 두어야 하며, 여기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人口政策이 人口抑制 자체뿐만 아니라 社會·經濟 全般의 발전에도 寄與하는 다목적 효과를 나타낼 때 더욱 큰 意義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出産力 低下에 影響력을 미치면서 동시에 社會·經濟 발전에도 寄與할 수 있는 變數들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1960年の 合計出産力 6.0에서 1975年 현재는 3.5名으로 나타나고 있음 (洪思媛,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78, p.158 참조).

로서 教育水準, 職業構造, 所得水準, 都市化 등을 들 수 있다(Freedman, 1975).

현재 우리나라의 經濟·社會 條件에서 별 다른 矛盾없이 國家發展에 寄與하며 동시에 出産力の 低下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手段은 女性の 就業機會의 확대라고 생각된다. 女性の 就業이 出産力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아직 일반적인 이론으로 정립되지는 못하였으나, 직접적으로는 妊娠과 分娩 및 育兒로 인한 機會費用(opportunity cost)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社會活動의 擴大를 통해 結婚, 家庭 및 子女에 대한 價値觀의 變化, 初婚年齡의 上昇, 避妊에 대한 知識, 그리고 生活觀 및 經濟水準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出産力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Dixon, 1975).

그러나 女性の 就業이 出産力에 미치는 영향의 方向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한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類型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Driver, 1963; Stycos, 1965; Zarate, 1967). 女性の 就業과 出産力間에 正의 相關關係를 보여 주는 경우는 주로 先進國에 나타나는 現象이며(Collver, 1968; Gille, 1965), 開發途上國의 경우는 오히려 負의 關係를 보여 주기도 한다(洪·韓, 1978; Goldstein, 1972; Heer·Turner, 1965). 또한 農村·都市에 따라 다른 相關關係를 보여 주는 경우도 있고(Bindary, et al., 1973; Collver, 1968; Gendell, 1967; Piepmeier·Adkins, 1973), 같은 就業이라 할지라도 職種에 따라 다른 出産力水準을 보이기도 한다(Blau·Duncan, 1967; Weller, 1968).

이와 같이 兩變數間에 한마디로 명확한 相關關係를 보이지 않는 것은 각 社會, 地域,

時點에 따라 女性就業의 의미가 다르고, 女性의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就業이라도 대개가 賃金勞動者로 집을 떠나 일하는 産業社會의 경우와 農業 또는 서비스業 등에 家事와 兩立할 수 있는 家族從事者 또는 自營業主의 形態로서 就業하는 農業中心社會의 경우가 다르며, 어머니가 就業하는 경우 子女를 대신 돌봐 줄 家族이 있는 大家族中心社會의 경우와 그렇지 못한 核家族中心의 社會 또는 託兒施設이 발달되어 있는 社會 등 多様な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教育水準과 出産力이 어느 나라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一貫性있게 負의 相關關係를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女性の 就業과 出産力과의 관계는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出産力 低下의 手段으로서 男兒選好思想과 관련하여 女性の 地位向上이 자주 擧論되고 나아가서 女性の 雇傭增大의 필요성이 力說되어 왔으나, 이는 經驗的 내지는 常識的인 論理를 근거로 한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연구는 李效再·趙馨(1976) 兩氏가 1970年 센서스 資料로 일반적인 입장에서 다루었으며 최근에는 筆者와 韓仁淑(1978) 氏에 의해 같은 資料를 이용하여 보다 본격적인 分析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資料上의 制約으로 인하여 비록 女性就業과 出産力間의 因果關係는 밝히지 못하였으나 女性の 就業이 出産力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즉, 既婚 可妊年齡의 婦人을 就業婦人과 非就業婦人으로 兩分해 보았을 때 後者の 경우가 前者보다 出産力이 더 높아 假設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으나, 婦人의 職種을 家事兩立職과 非兩立職으로 더욱 細分

하였을 때 後者의 出産力이 가장 낮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家庭과 職場이 분리된 先進國과는 달리 職業과 子女養育을 並存시킬 수 있는 家事兩立職이 더 많은 開發途上國의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現象으로서, 이들에게는 就業與否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就業의 성격이나 내용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女性就業과 出産力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就業與否를 따지기보다는 就業職種을 家事兩立과 非兩立의 경우로 구분하는 것이 分析方法上 중요하리라고 생각된다.

II. 資料 및 分析方法

本研究에서는 1975年度 可妊年齡層(15~49歲) 既婚女性 297,467名을 대상으로 한 人口센서스의 5% 標本調査資料를 이용하여 女性の 就業狀態와 出産力과의 관계를 分析코자 하였다. 女性就業과 出産力은 직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社會·經濟變數들과도 연관되어 복합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出産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要因들도 함께 고려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出産力과 女性の 就業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變數들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居住地와 教育程度도 함께 獨立變數로 사용하여 分析함으로써 가능한 한 出産力과 就

業間의 關係만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出産力의 測定値로는 1975年 基準 지난 5年間의 合計既婚出産力 (total marital fertility rate)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Cho와 Grabill(1970)의 適生兒方法(own children method)에 의해 推定되었다²⁾. 즉, 各年齡別既婚婦人の 5歲未滿 同居子女數에 일정한 死亡率, 同居子女比率, 및 漏落人口比率 등을 적용하여 年齡別 既婚出産率을 구한 후 이들 各年齡別 既婚出産率을 合計함으로써 合計既婚出産率을 구하였다. 이 合計既婚出産率은 모든 女性이 15歲에 結婚했다고 假定했을 때, 현재와 같은 出産率이 계속되는 경우 終局的으로 갖게 될 平均總子女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通常 쓰이는 合計出産率(total fertility rate)보다는 실감이 없으나, 女性の 年齡構造의 차이에서 오는 出産率의 차이에다 配偶關係別分布의 차이에서 오는 出産率의 차이까지 排除한다는 점에서 各特性別 婦人の 出産率을 비교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測定値로 생각되었다.

就業狀態는 就業하고 있는 婦人과³⁾ 非就業婦人으로서 大別하고 就業婦人을 다시 出産과 家事를 兩立시킬 수 있는 職種(農業·漁業·林業)의 就業婦人과 兩立할 수 없는 職種의 就業婦人으로 나눈 다음, 後者를 또 다시 專門·事務職, 販賣職, 運輸·서비스職 및 勞動職으로 細分하였다.

居住地域의 구분은 職種構造의 차이를 勘案, 人口 100萬 이상되는 서울, 釜山 및 大邱의 3개 都市를 大都市로 하며 우리나라 行政區域基準上 人口 5萬 이상으로 定義되는 既存 中小都市들과 分離시켰으며, 이에 農村을 追加하여 3개 居住地域을 구분하였다. 教育水準은

2) 자세한 방법은 洪·韓(1978): 2章 및 <附表2>를 참고할 것.

3) 여기서 就業婦人이라 함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一時 休職者와 과거 일한 경험이 있는 失業者도 모두 本研究의 目的上 就業의 範疇에 포함하였다.

資料의 制約 때문에 教育年限이 아닌 不就業,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및 專門學校 이상의 5個 集團⁴⁾으로 나누었다.

Ⅲ. 分析結果

1. 1975年度 出產力水準의 背景

1975年度の 出產力水準을 分析하기 전에 먼저 1970年度の 出產力을 살펴 보고 동시에 지난 5年間に 出產力水準에 變化를 줄 수 있었던 變數들의 變化趨勢를 概觀해 보기로 한다.

1970~75年 期間中 韓國의 人口는 年平均 1.8%로 증가하여 同期間中 總300餘萬名이 증가 되었으며 그 중 15~49歲 可妊年齡 女性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1975年현재 약 860萬名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그러나 15~49歲 女性中 既婚婦人은 同期間中에 65.1%에서 43.5%로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비록 15~49歲 女性의 絕對數 자체는 증가했어도 실제로 出產하는 婦人數는 오히려 감소한 趨勢를 보이고 있다⁶⁾. 또한 同期間中에 全可妊期 既婚婦人의 58.7%나 차지하던 農村婦人이 43.1%로 감소하여 그동안 都市化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이들 婦人中 教育程度 國民學校 이하가 79%나 되던 것이 69%로 감소하는 등 教育水準의 향상도 상당한 進展을 가져왔으며 女性의

就業率도 32.5%에서 거의 40%로 향상되었다. 더우기 1970年 당시 전체 婦人中의 10%만이 非兩立職에 從事했었는데 5年 후에는 15%로 증가한 것도 특히 주목할 만하다.

〈表 1〉은 1970年度の 出產力水準이 居住地域에 따라, 또 教育水準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同一居住地域, 同一教育水準內에서도 女性의 就業與否에 따른 出產力의 차이가 뚜렷이 보이고 있어 居住地域 및 教育水準의 出產力에 대한 영향력을 排除하고도 就業狀態는 出產力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요컨대 1970年 이래 5年 동안의 社會·經濟의 變化, 즉 都市化와 教育水準의 向上, 女性 就業率 增加, 특히 出產力과 뚜렷이 負의 關係를 가진 非兩立職就業率 增加가 同期間中의 出產率 低下를 충분히 暗示해 주고 있다. 이제 이러한 背景을 가지고 1975年度の 出產力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2. 出產力水準의 分析

〈表 2〉가 보여 주듯이 1975年 현재, 可妊年齡 既婚婦人中 39.8%가 就業을 하고 있으며 이들 就業婦人들 중의 過半數(62.6%)가 兩立職에 從事하고 있다. 즉, 15~49歲의 可妊期에 속한 既婚婦人 10名中 4名이 就業하고 있으며, 그 중 2.5名이 農事 등 家事兩立職에 從事하고 1.5名만이 非兩立職에 從事하고 있는 셈이 된다.

〈表 3〉에서 이들의 出產力을 살펴 보면 1970年의 경우와 類似한 形態를 보여 주고 있는데, 就業하고 있는 婦人이나 不就業婦人 모두가 약 5名으로서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4) 在學 및 中退는 該當學校를 卒業한 者와 同一한 範疇에 포함시켰다.

5) 經濟企劃院 (1972, 1978) 참조.

6) 1970年度の 結婚率은 10% 센서스 標準資料에서, 그리고 1975年度の 結婚率은 5% 센서스 標準資料에서 計算되었다.

〈表 1〉 就業狀態, 居住地 및 教育水準別 合計既婚出產力(1970年 현재)

	總 計	不 就 業	就 業		
			小 計	兩 立 職	非兩立職
全 國 總 計	5.46	5.35	6.50	6.87	4.28
不就學	6.40	6.32	5.65	6.39	3.76
國民學校	5.52	5.45	3.76	5.47	3.02
中學校	4.16	4.41	3.34	4.65	3.17
高等學校	4.08	4.28	3.25	5.26	3.21
專門學校以上	4.15	4.31	5.67	6.50	3.64
大 都 市 小 計	4.20	4.39	2.80	4.32	2.75
不就學	4.51	4.89	2.65	4.14	2.55
國民學校	4.40	4.61	2.75	3.63	2.71
中學校	3.94	4.09	2.63	—	2.54
高等學校	3.94	4.06	2.74	—	2.73
專門學校以上	4.08	4.24	3.04	—	3.04
中 小 都 市 小 計	4.85	5.03	3.79	5.48	3.27
不就學	5.29	5.60	4.25	5.81	3.04
國民學校	4.99	5.17	3.90	5.50	3.25
中學校	4.37	4.51	3.39	4.58	3.24
高等學校	4.37	4.56	3.13	—	3.05
專門學校以上	4.04	4.22	3.51	—	3.49
農 村 小 計	6.24	6.16	6.36	6.63	4.76
不就學	6.80	6.75	6.87	7.00	5.56
國民學校	6.17	6.11	6.26	6.52	4.81
中學校	5.01	5.08	4.83	5.55	3.85
高等學校	4.78	4.88	4.31	4.79	4.16
專門學校以上	4.21	4.52	3.67	—	3.52

註：—는 婦人의 數가 100名 미만.
資料：洪·韓(1978)

〈表 2〉 就業狀態 및 居住地別 可妊期 既婚婦人의 分布(1975年 현재)

	總 計	不 就 業	就 業		
			小 計	兩 立 職	非兩立職
全 國	297,467 (100.0)	60.2	39.8	24.9	14.9
大 都 市	53,365 (100.0)	79.7	20.3	0.9	19.4
中 小 都 市	116,034 (100.0)	73.6	26.4	7.7	18.7
農 村(郡部)	128,068 (100.0)	39.9	60.1	50.5	9.6

註：本文 註3)의 就業의 定義를 참조.

그러나 就業을 家事非兩立職과 兩立職으로 나누어 보면 出産力의 차이가 명백히 드러난다. 즉, 非兩立職 從事者의 경우는 3.4名인 반면, 兩立職의 경우는 5.8名으로서 子女養育과 兩立할 수 없는 職業에 從事하는 婦人의 出産力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家事兩立職 從事者들이 不就業者보다 出産率이 크게 높은 것은 一見 不合理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兩立職女性들이 不就業女性들보다 오히려 教育水準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해할 수 있다(表 4 참조). 이는 물론 教育水準만의 영향은 아니며 여러 社會·經濟變數의 復合作用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外國에서 볼 수 있는 現象으로(Cho·Grabill·Bogue, 1970) 所得水準別 出産率의 形態는

“U”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즉, 所得水準이 낮을 때 높은 出産率을 갖고 所得水準이 올라감에 따라 出産率이 차츰 낮아지나 所得水準이 어떤 限界를 넘었을 때는 다시 出産率이 所得水準을 따라 높아진다. 다만 美國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들 사이의 出産率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出産率이 낮은 中間所得層의 婦人들이 農業 등의 兩立職보다는 대부분 不就業者에 속해 있을 것이므로 그들의 出産率間에 큰 隔差가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出産率이 높은 高所得層 婦人 역시 不就業者에 소속될 것이나 數字적으로 전체 不就業者 出産率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전체 可妊女性中 단지 15%만을 차지하고

〈表 3〉 就業狀態 및 教育水準別 合計既婚出産力：全國(1975年 현재)

	總 計	不就業	就 業						
			計	兩立職	非 兩 立 職				
					小 計	事務職	販賣職	運輸·서비스職	勞動職
總 計	4.92	4.89	4.91	5.79	3.41	3.03	4.66	2.65	3.16
不就業	4.91	4.77	5.06	6.08	2.75	—	4.46	1.51	2.90
國民學校	5.23	5.20	5.24	5.83	3.77	2.32	5.04	2.88	3.55
中學校	4.44	4.58	3.95	5.08	3.29	2.49	4.40	2.63	2.84
高等學校	4.11	4.29	3.31	4.68	3.07	2.92	3.67	2.72	2.70
專門學校 以上	3.55	3.69	2.85	—	2.79	3.35	3.39	1.59	2.47

註：—는 婦人의 數가 100名 미만.

〈表 4〉 就業狀態 및 教育程度別 可妊年齡既婚婦人의 百分率(1975年 현재)

	總 計	不 就 業	就 業		
			小 計	兩 立 職	非兩立職
不就業	15.7	10.0	24.3	30.5	13.8
國民學校	53.3	49.9	58.5	62.9	51.2
中學校	17.6	22.5	10.3	5.4	18.5
高等學校	10.6	14.4	4.9	1.1	11.1
專門學校 以上	2.8	3.2	2.0	0.1	5.3
總 計	100.0	100.0	100.0	100.0	99.9
總 數	297,467	178,941	118,526	74,239	44,287

있는 非兩立職에의 就業婦인들이 가장 낮은 出産力을 보이고, 女性の 半數 이상이 不就業으로서 높은 出産率을 보이고 있다는 현실은 人口政策面에서 볼 때는 현재 就業하고 있지 않거나, 就業을 해도 家事兩立職에 從事하고 있는 婦人들에게 非兩立職에 대한 就業機會를 擴大해 줌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出産力의 低下를 誘導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示唆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非兩立職은 일정한 教育水準을 요구하며 農村보다는 都市型 職種이므로 就業狀態와 出産力間의 相關關係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居住地 및 教育水準에서 오는 영향을 排除할 필요가 있다.

먼저 <表 5>에서 教育程度에 따른 婦人の 就業狀態別 分布를 살펴 보면 教育程度에 따라 就業婦人の 構成比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教育이 낮을 때 더 많이 就業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를 家事와의 兩立與否로 就業狀態를 나누어 보면 國民學校 이하 教育水準에선 兩立職이 대부분인 반면, 中學校 이상의 水準에선 대부분이, 특히 專門學校 이상의 경우엔 거의 대부분이 非兩立職에 從事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教育水準 및 就業狀態別로 出産力을 살펴 보면 教育水準이 낮은(國民學校 이상) 婦

人들 層에선 就業婦인이 不就業婦인보다 높은 出産力을 나타내나 中學校 이상의 層에선 그 반대의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表 3 참조). 이는 教育程度가 就業狀態에 영향을 주며 또한 이들이 복합적으로 出産力水準에 영향을 줌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

한편 就業婦人の 分布를 地域別로 나누어 보았을 때 就業率은 地域間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表 2 참조). 즉, 農村의 경우 60.1%에 달하는 많은 婦人들이 就業하고 있으나 中小都市나 大都市의 경우는 그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약 20% 정도만이 就業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農村의 경우 非兩立職에의 就業이 9.6%밖에 되지 못하고 대다수가 家事兩立職에 속하고 있으나, 大都市의 경우는 비록 20.3%만이 就業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인 19.4% 포인트가 非兩立職에 從事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地域別 教育水準을 보면 일반적으로 大都市 住居婦人들의 教育程度가 中小都市나 특히 農村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5>에서 大學教育을 받은 女性들의 경우를 살펴 보면 이러한 現象은 더욱 뚜렷한데 農村婦人中 단지 0.9%뿐인 반면 大都市에서는 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不就業의 경우는 農村婦人中 23.4%가 이에 해당되

<表 5> 居住地 및 教育程度別 可妊年齡 既婚女性の 百分率(1975年 현재)

	合 計	不 就 學	國民學校	中 學 校	高等學校	專門學校 이 상
大 都 市	53,365 (100.0)	6.8	43.1	24.5	18.8	6.8
中 小 都 市	116,034 (100.0)	11.5	50.8	21.6	13.2	2.9
農 村(郡 部)	128,068 (100.0)	23.4	59.8	11.2	4.8	0.9
全 國	297,467 (100.0)	15.7	53.3	17.6	10.6	2.8

는 데 반해 大都市의 경우는 6.8%만이 이에 속한다. 教育水準과 就業率과의 類型은 地域別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表 4>의 全國平均과 비슷하며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 약간적 차이가 보일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1970年이나 1975年의 경우 모두 就業狀態別 構造는 教育水準 및 居住地域의 차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變數들로 인한 出産力의 차이를 排除하고 就業狀態와 出産力間의 相互關係를 알아 보기로 한다.

가. 農村地域의 出産力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農村婦人의 教育程度는 可妊女性의 83.2%가 國民學校 이하의 教育水準을 갖고 있어(表 5 참조) 地域別로 보면 가장 낮고, 就業婦人比率는 60% 이상으로서 다른 地域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이들 就業婦人中 단지 16%만이 家事非兩立職에 從事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5年前과 같은 類型으로 出産力은 1970年의 6.2名에서 5.5名으로 상당히 減少하였으나 여전히 大都市의 4.0名, 中小都市의 4.7名에 비해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表 6>을 보면 就業狀態에 따라 出産力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就業者가 5.6名으로 不就業의 5.4名보다 높게 나타나며, 또 就業은 兩立職의 5.9名과 非兩立職의 4.1名으로 구분되어, 非兩立職이 不就業보다 훨씬 낮은

出産力을 보이고 있다. 非兩立職을 더욱 組分해 보면 가장 높은 出産力(5.1名)을 보이는 販賣職從事者⁷⁾도 兩立職이나 不就業婦人들 보다는 낮게 나타나며 事務職從事者의 경우는 3.3名으로 農村婦人中 가장 낮은 出産力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教育水準에 따라 나누어 보면 不就業 및 國民學校의 경우는 農村 全體平均과 마찬가지로 就業者가 不就業者보다 높은 出産力을 보여 주고, 中學校 이상의 水準에선 이와 반대의 現象을 보이나, 兩立職·非兩立職으로 細分하였을 경우 家事兩立職婦人이 不就業婦人보다는 出産力이 높아 다른 教育階級과 같은 模型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中小都市地域의 出産力

可妊期 既婚婦人의 39%가 居住하고 있는 中小都市地域은 婦人들의 教育水準, 出産力, 經濟活動 등의 면에서 大都市와 農村地域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다소 大都市쪽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出産力水準은 1970년에 비해 별로 큰 低下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1970年의 4.85名에서 1975년에 4.74名) 이를 就業 狀態와 관련시켜 보면 農村地域의 경우와는 다른 類型을 보여 주고 있다. <表 7>에서 보듯이 中小都市地域 婦人의 出産力은 不就業의 경우 4.9名으로 就業婦人의 3.9名보다 높은 出産力을 보인다. 그러나 역시 就業을 구분해 보면 兩立職의 경우가 5.4名으로 不就業의 경우보다 높으며 非兩立職의 경우는 3.4名으로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非兩立職을 다시 細分해 보면 農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販賣職從事者의 出産力이 5.0名으로 가장 높고⁸⁾ (不就業의 경우

7) 本研究에서는 편의상 職種만으로 家事와의 兩立, 非兩立을 定義했으므로 완전한 구분이라 할 수는 없다. 이의 완전한 구분을 위해서는 從事上の 地位를 分類基準에 追加해야 할 것이다. 특히 販賣職 從事者 가운데는 小規模 自營業主나 家族從事者로서 家事와 兩立할 수 있는 就業女性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註 7) 참조.

보다도 높다), 運輸·서비스職이 2.6명으로 中小都市婦人中 가장 낮은 出産力水準을 보이고 있다.

한편 各教育水準別로 出産力과 就業狀態를 보았을 때도 教育程度에 따라 初等教育階層의 女性이 不就學의 경우보다 높은 出産率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出産力의 차이는 적지만 都市地域全體平均과 같은 類型을 가지고 있다. 즉, 教育水準에 상관없이 非兩立職, 不就業, 兩立職從事의 順으로 出産力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非兩立職을 細分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販賣職의 出産力이 가장 높으며 심지어 國民·中學校의 경우는 不就業의 경우보다도 出産力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大都市地域의 出産力

大都市地域의 婦人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農村이나 中小都市地域의 婦人들에 비해 教育水準은 높고 就業率이 훨씬 낮은 반면, 就業의 類型은 職場과 家庭이 分離된 職種の 從事者가 더 많다.

就業婦人の 出産力은 <表 8>에서 보듯이 2.7명으로 不就業婦人の 4.3명에 비해 훨씬 낮으며(이 차이는 農村이나 中小都市의 경우보다 월등히 크다), 就業中 兩立職의 경우는 3.7명으로 非兩立職의 2.7명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非兩立職을 다시 細分해 보았을 때도 農村·中小都市와 마찬가지로 販賣職이

<表 6> 就業狀態 및 教育水準別 合計既婚出産力: 農村(1975年 현재)

	總 計	不就業	就 業						
			計	兩立職	非 兩 立 職				
					小 計	事務職	販賣職	運 輸· 서 서비스職	勞動職
總 計	5.50	5.35	5.62	5.93	4.08	3.29	5.10	3.40	3.86
不就學	5.66	5.45	5.86	6.24	3.94	—	4.63	2.40	4.64
國民學校	5.64	5.55	5.78	5.97	4.52	—	5.48	3.81	4.33
中學校	4.72	4.85	4.59	5.13	3.59	—	4.57	2.91	2.99
高等學校	4.46	4.68	3.97	4.72	3.62	3.29	4.53	3.63	2.39
專門學校 이상	3.45	3.58	3.29	—	3.00	3.48	—	—	2.51

註: —는 婦人數가 100名 미만

<表 7> 就業狀態 및 教育水準別 合計既婚出産力: 中小都市(1975年 현재)

	總 計	不就業	就 業						
			計	兩立職	非 兩 立 職				
					小 計	事務職	販賣職	運 輸· 서 서비스職	勞動職
總 計	4.74	4.92	3.94	5.44	3.35	3.27	4.95	2.57	3.11
不就學	4.21	4.68	2.98	4.72	2.32	—	4.18	1.25	2.34
國民學校	5.07	5.23	4.36	5.50	3.64	2.23	5.38	2.78	3.44
中學校	4.49	4.63	3.73	5.45	3.43	2.51	4.92	2.69	3.21
高等學校	4.31	4.48	3.32	4.70	3.23	3.20	3.72	2.69	3.02
專門學校 이상	4.54	4.71	3.00	—	2.99	3.69	—	1.90	2.76

註: —는 婦人數가 100名 미만.

3.4명의 出産力으로서 가장 높은 水準을 보이며 運輸·서비스職이 1.9명의 낮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教育程度에 따른 出産力の 차이는 中小都市의 경우보다는 크게 나타나며 中小都市 農村과 마찬가지로 國民學校의 경우가 不就學보다도 높은 出産力을 나타내고 있다. 就業狀態別 出産力은 教育程度에 상관없이 같은 樣相을 보여 주어 不就業, 兩立職, 非兩立職의 順으로 높은 出産力을 나타낸다.

즉, 大都市婦人들의 경우 就業者的의 대부분이 非兩立職 從事者로서 이들의 出産力은 少數 低教育層 兩立職 從事者들이나 不就業者들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는 教育程度에 상관없이 비슷한 類型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地域別, 教育水準別 및 就業狀態別로 1975年 현재 우리나라의 可妊年齡 既婚婦人의 出産力을 알아 보았다. 비록 居住地別로 그리고 다시 이것을 教育水準別로 나누어 就業狀態와 出産力과의 관계를 봄으로써 居住地 및 教育程度에 의한 영향을 排除하고 就業活動與否로 인한 出産力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알 수 있었으나 이들의 相互關係를 좀더 간략

하고 명확하게 규명해 보기 위해서 非線型關係의 聯關性을 調査하는 데 알맞는 分析方法인 相關比(correlation ratio)를 사용하여 밝혀 보기로 한다.

〈表 9〉는 教育水準, 居住地域 및 就業狀態 등 各變數들의 出産力水準에 대한 說明力과 他變數들의 영향력을 排除한 경우의 說明력을 모두 보여 주고 있다. 1975年の 경우 他變數에 의한 영향을 排除하지 않은 單純相關比를 보면 教育水準이 .02로서 出産力과 가장 밀접한 相關關係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他變數에 의한 영향을 排除한 說明력(eta²)의 경우는 就業狀態가 出産力 低下에 가장 많은 寄與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를 1970年과 비교하여 보면 就業·教育水準·居住地와 出産力과의 單純相關比는 비교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擬似相關을 排除한 各變數의 出産力 低下에 대한 說明력은 居住地가 상당히 떨어진 반면, 就業狀態와 教育水準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들 전체의 說明력도 1970年の 28.9%에서 1975年の 31.2%로 많이 向上되었음을 볼 수 있다.

教育水準 및 就業狀態로 인한 影響력을 排

〈表 8〉 就業狀態 및 教育水準別 合計既婚出産力：大都市(1975年 현재)

	總 計	不就業	就 業						
			計	兩立職	非 兩 立 職				
					小 計	事務職	販賣職	運 輸· 서 비스 職	勞動職
總 計	4.01	4.25	2.69	3.66	2.65	2.31	3.40	1.93	2.44
不就學	3.03	3.38	1.71	4.01	1.43	—	3.21	1.10	0.78
國民學校	4.27	4.59	2.80	3.27	2.77	—	3.60	1.81	2.57
中學校	4.08	4.30	2.80	—	2.79	—	3.49	2.30	2.38
高等學校	3.63	3.82	2.37	—	2.33	1.83	2.93	1.96	2.43
專門學校 이상	3.06	3.23	2.36	—	2.36	2.68	—	—	2.33

註：—는 婦人의 數가 100名 미만.

除하고도 나타나는 居住地의 차이로 인한 出産力의 차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指摘했듯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大家族制度 및 多子女 規範에 대한 傳統的 價値가 都市에 비해 農村 地域에 많이 殘存하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傳統的 社會規範의 拂拭이 教育水準의 向上이나 非兩立職에의 就業機會의 擴大와 함께 중요한 出産力 低下의 手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規範의 인 것이나 教育·就業 機會 외에도 農村과 都市의 構造的 차이점을 分析하여 出産力과의 聯關性을 밝혀내고 이를 政策的으로 補完해 나감에 必要할 것이다. 비록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教育水準이 出産力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教育水準 向上의 重要性은 구태여 언급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教育水準의 向上은 比단 出産力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社會全般에 걸쳐 人的 資源의 質的 水準을 높이는 데에 더욱 큰 意義가 있으며, 이는 또한 女性들로 하여금 家事非兩立職에로의 進出을 용이케 하여 間接적으로 出産力의 低下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3. 出産力水準의 變化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이상의 分析에서 우리는 1970年과 같이 1975年에도 婦人들의 教育程度, 居住地域 및 就業與否 등이 복합적으로 出産力水準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 5年 동안 平均合計既婚出産率 5.5에서 4.9로 減少된 出産力의 變化에 이들 變數들이 얼마나 작용하였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5年間에 平均 0.6이 減少된 出産力의 變化를 從屬變數로 하고 居住地域, 教育程度, 就業狀態의 3變數를 「더미」 變數化하여 多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方程式을 얻었다.

$$C = 2836.3 - 317.3D_2 - 1880.7R_1 - 582.1R_2 + 2144.1E_1 + 2247.1E_2 + 1371.9E_3 + 1200.3E_4 + 1431.1O_1 + 149.0O_2$$

$$(R^2 = .536, F = 12.4, N = 90)$$

〈表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 5年間에 걸쳐 전체 出産力 減少의 29.9%가 教育水準, 就業率 및 居住地 등의 構造的인 變化를

〈表 9〉 合計既婚出産力에 대한 就業狀態, 教育水準 및 居住地의 影響力(1970, 75年)

	就業狀態		教育水準		居住地	
	1970	1975	1970	1975	1970	1975
相關比(correlation ratio)	.020	.017	.020	.020	.010	.004
他變數影響 排除(eta ²):						
居住地 (R)	.7	.8	.1	.4		
就業狀態 (O)			.1	.5	1.7	.5
教育水準 (E)	1.0	1.1			1.4	.7
R+E	.6	.8				
O+R			.4	.4		
O+E					1.0	.4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이는 1%水準에서 有意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각각의 寄與度를 보면 就業狀態의 變化가 19.1% 포인트, 教育水準의 向上이 17.5% 포인트를 나타냈으나 居住地의 變化는 -6.7% 포인트로서 오히려 出産力을 증가시키는 方向으로 작용하였다. 즉, 家事非兩立職에의 就業率 및 教育水準의 向上은 出産力의 低下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農村에서 大都市로의 급격한 人口移動으로 特徵지워지는 70年代 이전과는 달리 1970~75年間에는 農村人口가 大都市보다는 中小都市로 더 많이 移動한 것으로 인해 居住地 變化는 오히려 出産力 低下에 逆作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0年이나 1975年의 경우 모두 유사하게 3變數들 중 教育水準이 出産力水準과 가장 높은 相關性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示唆해 주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結論을 誘導해 낼 수 있다.

첫째, 1970年 및 1975年度의 出産力水準은

婦人の 教育程度, 就業與否 및 居住地域에 따라 다르며 이들 중 특히 教育程度의 高下에 따라 일반적으로 出産力水準에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둘째, 그러나 變數들 자체의 構造的인 變化가 同期間中에 일어난 出産力 變化에 미친 영향력을 볼 때는 오히려 就業狀態의 變化가 出産力 變化에 가장 큰 寄與를 하였다.

V. 結 論

이제 우리는 이상의 分析에서, 序論에서 언급한 女性就業機會 增大가 出産力 억제의 가장 중요한 變數 중의 하나임을 立證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出産力을 低下시켜 人口成長을 억제코자 하는 人口政策의 立場에서 볼 때, 더우기 人口政策을 諸般 社會·經濟 發展目標와 연관시키고자 할 때에는 長期的인 효과를 목

〈表 10〉 1970~75年間 出産力 低下에 미친 就業狀態·居住地 및 教育水準 變化의 影響力

	係 數	標準誤差	% 分 布		% 寄與度
			1970	1975	
年度「더미」(D ₂)	-317.3	247.3			
居住地域					-6.7
大都市 (R ₁)	-1880.7	302.9	27.6	17.9	
中小都市 (R ₂)	-582.1	302.9	13.8	39.0	
教育水準					17.5
不就學 (E ₁)	2144.1	391.0	27.6	15.7	
國民學校 (E ₂)	2247.1	391.0	51.7	53.3	
中學校 (E ₃)	1371.9	391.0	11.5	17.6	
高等學校 (E ₄)	1200.3	391.0	7.1	10.6	
就業狀態					19.1
不就業 (O ₁)	1431.1	302.9	67.5	60.1	
家事兩立職 (O ₂)	149.0	302.9	22.5	25.0	
其 他	—	—	—	—	70.1
出産力			535.8	492.3	100.0

적으로 하는 教育水準의 向上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점은 女性就業機會의 擴大라고 結論 지을 수 있다. 특히 人力需要가 急増하고 있는 此際에 바람직한 政策手段으로서 女性에게 就業機會 특히 家事非兩立職에의 就業機會를 擴大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女性技術教育을 強化할 수 있는 方案이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就業의 機會뿐 아니라 女性으로 하여금

家庭生活과 並行하여 家事非兩立職에도 就業할 수 있는 諸般與件, 예컨대 託兒所施設이나 既婚女性을 위한 時間制 雇傭 등의 社會 서비스나 制度의 改善 내지 改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巨視의 次元에서 볼 때 出產力水準의 低下는 물론 國家가 投資해 놓은 女性潛在人力을 國家經濟 발전에 직접 활용케 한다는 二重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眞價를 가질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 『1970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1972.
- _____, 『1975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1978.
- 洪思媛,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78.
- 洪思媛·韓仁淑, 「韓國女性の 就業狀態와 出產力: 1970」, 未刊行資料.
- Bindary, Aziz, B. Colin and T.H. Hollingsworth, "Urban-Rural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1973, Vol. 5, pp. 159—167.
- Birdsall, Nancy, "Women and Population Studies," *Signs*, 1976, Vol. 1, No. 3 (Spring), pp. 699—712.
- Blau, P.M. and O.D. Duncan,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 Y.: John Wiley and Sons, 1967.
- Buvinic, Mayra, *Women and World Development—An Annotated Bibliography*, Washington, D.C.: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1976.
- Cho, L. J., W. H. Grabill and D. J. Bogue, *Differential Current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Collver, O. Andrew, "Women's Work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 Metropolitan Areas," *Demography*, 1968, Vol. 5, No. 1, pp. 55—60.
- Concepcion, Mercedes B.,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ternational Labor Review*, 1974, Vol. 109, No. 5—6, pp. 503—517.
- Dixon, Ruth B., "Women's Rights and Fertility," *Reports on Population Family Planning*, 1975, No. 17 (January).
- Driver, E.D., *Differential Fertility in Central Indi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 Freedman, R., *The Sociology of Fertility*, N. Y.: John Wiley and Sons, 1975.
- Gille, Halvor, "Summary Review of Fertility Differentials in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London (Liege, 1971)*, 1969, Vol. III, pp. 2018—2019.
- Gendell, M., "Fertility and Development in

- Brazil," *Demography*, 1967, Vol. 4, pp. 143—57.
- Goldstein, Sidney, "The Influenc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Education on Fertility in Thailand," *Population Studies*, 1972, Vol. 26, No. 3(November), pp. 419—436.
- Heer, D.M. and E.S. Turner, "Areal Difference in Latin American Fertility," *Population Studies*, 1965, Vol. 18, pp. 279—292.
- Hoffman, Lois W., "The Employment of Women, Education, and Fertility" *Merri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1974, Vol. 20, pp. 99—119
- Lee, Hyo-Chai and H. Cho, "Fertility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Recent Empirical Findings in Fertility: Korea, Nigeria, Tunisia, Venezuela, Philippines*,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1976, pp. 1—26.
- Piepmeyer, K. B. and T.S. Adkins, "The Status of Women and Fertility,"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1973, Vol. 5, pp. 507—520.
- Stycos, J.M., "Female Employment and Fertility in Lima, Peru,"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1965, Vol. 43, pp. 42—54.
- Ware, Helen, "The Relevance of Changes in Women's Roles to Fertility Behaviour: The African Evidence," *The Population Council*, New York: 1975.
- Weller, R.H., "The Employment of Wives, Role Incompatibility and Fertility: A Study among Lower and Middle Class Residents of San Juan, Puerto Rico,"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1968, Vol. 46.
- Zarate, A.O., "Fertility in Urban Areas of Mexico: Implications for the Theory of Demographic Transition," *Demography*, 1967, Vol. 4, pp. 354—376.